

제10회 워터코리아 대전 개최

국내 최대의 상하수도 전시회인 <제10회 2011 워터코리아>가 대전에서 개최된다.

대전시는 한국상하수도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<워터코리아> 행사를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0월31일 발표했다.

개막식에는 윤종수 환경부 차관, 아마드 말레이시아수도협회장, 트랑 베트남상하수도협회 부회장 등 국내외 수도분야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, 상하수도 관련 국내외 175개 기업이 참여해 580여개 홍보 부스를 열고 물 분야의 신제품과 신기술들을 전시한다.

일반기업 뿐만 아니라 K-water, 환경공단,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 등도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상하수도 분야의 사업 현황과 비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.

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“국내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11/11/01>